서른한번째 이야기

그 길을 걸어 보기로 결단하다

[23-2 OBA 수련회 후기]

드디어 OBA 성령 수련회 날 아침이 밝았다. 수련회 전날 밤에는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설레어서 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를 8주 동안 공부한 것을 모든 학생들과 연극으로 준비해 무대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니 떨리기도 하고, 다른 반들은 어떻게 준비했을지도 궁금했다. 감사하게도 날씨는 따뜻했고 버스 안에서 신나게 찬양하다 보니 어느새 양지에 도착해있었다.

한반 한반 준비해 온 연극, 찬양, SUM을 차례로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갈3:11).”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로지 그분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는 정성스러운 공연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귀한 체험을 하였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깊이 대면해야 했는지, 왜 반드시 꼭 필요했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나를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나주셨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만과 자만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책감과 정죄함으로 인해 나 스스로 우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로 초대해 주셨고,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다시 확증해 주셨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의 사역이 이처럼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꿈꾸고 계신 평신도의 사역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깨닫고 비전을 품게 되었다. 각지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까 고민하시며 준비하셨을 간식, 선물, 식사, 찬양의 섬김 등 OBA 인도자 한분 한분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들이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순교자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사랑했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기념돌들이 양쪽 길을 따라 세워져 있었다.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돌에 새겨진 순교자의 이름과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며 기념관으로 올라갔다. 순교자의 삶과 죽음! 숭고하고 거룩한 한분 한분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신기한 내면의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순교자들의 삶과 순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1:29)." OBA 성령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초대하시되 기쁨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 보기로 결단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과정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 주시며, 하늘나라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인도자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글쓴이 구현정 성도]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큰 은혜와 도전받고 있으며, JDS를 수료하고 참여한 갈라디아서를 통해 누렸던 자유함과 회복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같은 차를 타고 수련회를 가본 게 언제였던지…. 내 마음이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가기 전부터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다. 제비뽑기로 짝꿍을 뽑고, 프로그램 중에 반별 찬양과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난 즐거움이 더 가득했던 것 같다.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와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함께 부른 찬양 또한 은혜로웠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찬양하며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를 누렸다. 반별로 준비해온 찬양과 연극을 보면서, 같이 웃고, 눈물을 흘렸다. 갈라디아서를 배우며 값없이 받은 은혜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팀이 1등을 했을 때 우리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듯 기뻐했다. 식사하면서도 BEE 리더십과 사역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다. 난 이제 성경 66권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일 잘하는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짙어가는 가을날을 만끽하며 누리게 하셨다.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BEE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계 각지에 전해지길 소망한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도 복음에 관한 나의 생각이 달라졌듯이….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묵도하며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선 성도]

올해 JDS 간사로 섬기며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낸 후, 이 과정을 함께 마친 자매님들과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되었다. JDS 간사 재헌신으로 계속 바쁘겠지만 로마서도 연이어 도전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사역을 섬기며,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이다.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아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롬1:14).”